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김신희

착한 소비와 사회적 책임

사람 앞에만 붙어 있던 '착한'이라는 형용사가 착한 가격, 착한 소비라는 표현으로 의인화되어 많이 쓰여 지고 있는 요즘이다. 쇼핑을 나갔다가 판매원들이 어떤 물건을 가라키며 "애는 얼마이구요, 애는 얼마이신대요, 애가 참 착한 가격이에요."라는 표현을 대할 때면 의인화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언어의 사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소비,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착한소비, 안티소비 등등, 소비의 형태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 이기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나의 소비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구매하려는 상품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 환경에는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생산자의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력의 착취는 아닌가, 유

통과정에서의 부당거래나 갑질의 우려는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권장소비자 가격 대신 최종 판매업자, 즉 유통업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적정 가격에 대한 불신감과 가격 담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눈부신 경제 발전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는 충족되었지만 소득이 향상되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비의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물질적인 충족만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또는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쇼핑을 한다. 정신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한 이런 소비 형태는 계획적인 소비가 아니므로 충동구매가 되기 십상이며 제2의 스트레스를 야기할 공산(公算)이 크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자연을 보호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파소비로 인해

서 미칠 환경피괴도 염두에 두는 소비가 되어야 한다. 화장지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면서 벌포를 남발하는데 일조한다든지,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 구식이라고 합부로 버리는 물건은 없는지 등등,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과대광고에 속아 필요 이상의 구매를 세례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환경위기의 시대에는 돈의 가치를 실현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절실하다. 소비의 욕구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소비자의 이런 요구가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예산에서 계획을 세워 효용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면 이 때의 합리성은 경제적 의미의 합리성일 뿐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상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고려하는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정식 사육방식으로 위험한 질병과 질 낮은 상품으로 생산되는 육류 혹은 육류 가공품들, 과다한 영양과 화학비료로 자

란 과일과 야채들, 제3세계 국가들의 노동력 착취로 생산되는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윤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기업에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소비행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기업도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선호하면 공장식 사육방식이 줄어들 것이며 공정거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공정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려는 층이 늘어나면 모든 상품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바로 윤리적 소비가 윤리적 경영을, 착한 소비가 착한 생산을, 착한 가격이 착한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YWCA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설득력 없는 금호고속 새 노조 파업 결정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새 노조가 내일 오전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 줄곧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노조 활동 방해와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금호고속 새 노조의 파업 결정은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새 노조의 주장대로 사측에 의한 부당한 탄압과 방해 등으로 노조의 존립과 노조원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방어에 나서서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번 새 노조의 파업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금호고속은 기존노조와 지난해 7월 단체협상, 지난해 22일 임금협상을 타결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새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는 노동법에 명시된 '교섭 창구 단일화'에 어긋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셈이다.

또한, 사측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

달부터 새 노조를 인정한다고 밝혀 노동활동 방해와 탄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지금은 파업할 시기가 아니라 금호고속은 그룹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매각설이 나오는 등 경영상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노사가 합심해도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판국에 파업을 벌여 회사 창사 이래 64년 가까이 흔들릴 수 있다. 자칫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사이에 3차례 파업을 벌여 회사 창사 이래 64년 간 이어져 온 부분급 전통을 깰 바 있다. 이렇듯 특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명분이야 어떻든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새 노조는 이제 명실상부한 노조로 인정을 받은 만큼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광주시와 이용섭 의원 '갈등' 더는 안 된다

광주시와 민주당 이용섭 의원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갑툭튀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틀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넘어져서도 떨어졌는데,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널려 있는 덩굴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를 면했지만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니 밑에는 무서운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을 잡은 손에서는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보았더니 마침 절벽에 꿀벌이 집을 지어놓아 꿀이 졸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꿀을 한 손으로 찍어서 입에다 대보니 꿀맛이 관촬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덩굴 위에서는 굶어 죽어 한 쥐가 풀이꺼 덩굴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뿐입니다.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대립 양상을 보였던 강 시장과의 '감정의 골' 때문이라든지, 강 시장이 '하락'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놓고 광주시와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 받으면서 마찰을 빚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광주는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인데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생으로 가도 힘겨운 판이다. 당장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보조에 나서야 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에 갈등으로, 지역화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이 의원이나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지난 1년간 전국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2.8점 하락한 반면 광주시는 6.7점이나 하락했다'는 내용이 의원으로서 순수성이 전제가 된

종교칼럼



김재영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종교 없는 교육은 다만 딱딱한 악마를 만들 뿐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왜 사느냐?'에 대한 삶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려 드는 사람은 마치 목적지를 모르면서 차만 타려고 허둥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현대를 '방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본질을 망각한 시대입니다. 수단과 방법에 안행 정성을 팔다 보니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잘 팔리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물건을 만들며 왜 이익을 추구해야 되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별로 교육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 없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성자가 지배하는 시대 아니라 기술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다 죽는 것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날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암흑의 대양에 떠 있는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물질만 추구하다가 영혼을 상실하고 오늘을 쫓다가 먼 미래를 저당 잡혀 버린 현대인들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다, 또 하나는 존재의 양식이다. 소유의 양식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얻으려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고 죽는 것이다. 존재의 양식은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

하고 사명에 사는 것이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지닌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그 인생이 세운 가치관에 있습니다. 사람의 사명됨은 관심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추구한 만큼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만 바라본다면 허무한 삶이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 고상한 삶이요, 순간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살면 쾌락적인 삶이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 한 번 가는 세상(one way trip)을 살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고



한상결

평창 '새로운 지평' 열다

오랜만의 낭보였다. 자크 로제 IOC위원장이 '평~창!'을 발표하는 순간 더반 현장의 유치단, 평창과 강원도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부산 자축은행 시간,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와 포플리즘 논쟁,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우울하던 대한민국에 희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국가적 대경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세계 3대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그랜드슬램' 국가에 편입되게 되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 한다. 내달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

회, 2015년 광주에서 열릴 하계유니버시아드까지 생각하면 기쁨은 배가된다.

외신들도 '평창, 더반에서 꿈을 이루다', 'IOC, 한국의 끈기에 답하다', '한국의 압도적 승리' 등 톱뉴스로 타전했다.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지 확정은 지난해 서울 G20정상회의에 이어 세계가 주목하고 경탄할 만한 코리안 빅뉴스이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격(國格)'을 갖추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평창이,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국가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 눈의 천국 안시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는 데 성공한 이유로 '삼세 번, 김연아 선수, 이강희 회장'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조양호 유저위원장, 김진선 유저위 특임대사, 문대성 IOC선수위원 등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삼세 번' 그룹의 멤버들이다.

2003년, 2007년 평창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와 러

시아 소치에 3~4표 차이로 석패했다. 패배를 딛고 세 번째 도전장을 낸 것은 이 대통령, 조 위원장, 김 특임대사, 문대성 선수위원 등의 불굴의 집념이고, 그 집념이 2011년 더반에서 IOC위원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1년 전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의 감격'이 없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능했을까? '만날 사람 다 만났다'는 IOC위원 이강희 회장의 막후 교유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느 한두 가지로 대역사가 이뤄지는 일 없다. 사실 평창의 실질적인 승인은 '새로운 지평'이었다.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평창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유럽 IOC위원들의 감성까지 자극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내가 어릴 때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웠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의 다른 선수들에게

도 같은 꿈을 이루는 데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유치위의 '비밀 병기' 토비 도슨(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미국 동메달리스트, 한국 입양아 출신)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연설자로 등장해,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통해 30년 전에 잃어버린 부모와 조국을 되찾았다. 내가 그랬듯이 평창은 변방의 나라 소외받는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울먹여 IOC위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반전의 찬스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자화자찬이나 비판 여론 덮기 식으로 이용해서는 찬스는 금방 더 큰 비판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정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시대적 담론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럽 IOC위원들까지 움직인 '새로운 지평'의 교훈, '변방의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의 영역을 넓히고 어린 선수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겠다'는 공존의식을 진심으로 고민할 때, 사랑받는 정부, 존경받는 계제로 격상될 수 있다. '선진국의 국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전 광주인성고 교감〉

아이들 먹는 과자 성분 표기 쉽게 해야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소금 성분이 너무 많아서 늘 걱정스럽다. 과자 봉지에 깨알같이 쓰인 성분표시를 꼼꼼히 살펴보면 웬만한 소비자가 눈여겨 찾기 전에는 알아볼기 힘들 정도로 꼭꼭 숨어있다.

그나마 있는 것도 화이브미니, 구연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코치닐색소 등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이 뿔뿔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용어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으니 알

이렇게 쓰인 용어들은 인공 향료, 색소 등이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다. 그런 청소년들이 자주 먹는 햄에도 나쁜 성분이 많이 있다. 또 그것을 쓴 표현도 너무 어렵다.

대표적으로 글루타민산나트륨은 화학조미료인 MSG를, 소르빈산칼륨은 방부제적인 보존료, 아질산나트륨은 색을 유지해주는 화학발색제인데 이것들을 소비자들의 눈속임으로 어려운 영어만 잔뜩 써놓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표기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이해를 막기 위한 표기에 가깝다. MSG가 안 들어갔다는 라면 같은 것도 대부분 다른 화학첨가물이 대신 들어있다고 한다. 화학첨가물을 잔뜩 쓴 다음 시스닝 분말 이런 식으로 복합재료로 표기해버리면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 또 설사 몸에 해로운 성분을 읽고 이해해도 이번엔 그 양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첨가물 정보를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제도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신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지난해 8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리조트를 들른 적이 있다. 정식 개장한 지 한달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스키점프대와 슬로프는 물론 특급 호텔과 워터파크까지 사계절 복합 리조트로서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골프장 페어웨이를 따라 들어서면 골프 빌리지는 한채 가격이 최고 33억원에 달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평리조트와 인접해 있어 동계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던 알펜시아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1조7000억 원이던 막대한 돈을 들여 5년간만 완공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경쟁에서 밴쿠버에 패한 후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하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에 개발과 운영권을 맡겼다.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 지었지만 분양에 실패하면서 빚만 1조원에 육박했다. 한마디로 파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평창이 3수(修)만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면서 알펜시아는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벌써부터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 지원에 나설 움직인다. 유치전에 적극 나섰던 삼성전자가 이강희 회장이던 알펜시아 회원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이강희 효과'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양에선 지난해부터 F1이란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강원도처럼 전 남도가 유치해 온 3대 국제대회 중 하나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스포츠의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며 야만법석이다. 동계 올림픽, 월드컵축구, F1, 세계육상선수권을 모두 유치한 나라는 세계에서 5개국 뿐이라는 것이다. 유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F1 유치를 그랜드슬램 달성으로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호남을 대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사건부 2200-693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사건부 2200-693	사건부 2200-693	광고매체국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사건부 2200-693	정경부 2200-612	(F A X 222-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사건부 2200-693	다자간 2200-536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사건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